

구약논단

제 15권 4호(통권 34집) 2009년 12월 31일

이 윤경(이화여대) 쿰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	144
본 논문은 쿰란공동체와 하스몬 왕가 및 주류 유다사회와의 결별 이유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율법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쿰란공동체의 출현과 존재는 여타 경쟁 그룹들과의 구약 오경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쿰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 규정들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자 한다.	
Lee, Yoon Kyung The Purity Law in the Qumran Scrolls	144

쿰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קַטְוּט תּוֹהֳרָה)

이 윤경 | 이화여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쿰란공동체는 신구약중간시대 유대광야에서 생활했던 일단의 무리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쿰란학자들 중 다수는 이들을 옛세네파로 보고 있다.¹⁾ 이들은 예루살렘 중앙정부는 물론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물리적, 정신적, 종교적 거리를 두고 고립된 생활을 했던 자들로 알려져 있다. 쿰란공동체와 예루살렘의 갈등과 마침내 결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주장이 슈테게만(Stegemann)의 주장이다. 그는 대제사장 알키무스 사후 요나단이 대제사장직에 오르기까지, 즉 기원전 159년부터 152년을 대제사장직이 공백이었던 시기로 본다.²⁾ 그는 이 공백기에 사실 대제사장이 있었으며, 이

* “이 논문(저서)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A00108(100146)).”

1) 옛세네파에 대한 고대의 기록은 다음을 보라. Philo, Quod amnis probus liber sit 86; Apologia pro Judaeis 4, 11, 14-17; Natural History, 5. 15. 73; Josephus, War 2. 120-122, 135, 139-42, 160-161; Antiquities 18. 21). 1990년대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기 전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된 ‘옛세네파 이론(Qumran-Essene hypothesis)’은 원래 드 보(R. G. de Vaux)와 밀릭(J. T. Milik)에 의해 주창된 것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대제사장이 마카비 혁명 이후 하스몬 왕가를 이룬 요나단과의 권력 쟁투에서 패배하고, 쿨란으로 도피한 쿨란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의의 스승(פֶּתִיחַ מִיַּד מֹרֶה פֶּתִיחַ)'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쿨란공동체와 예루살렘의 결별을 정치적 이유로 보는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쿨란학자들은 쿨란문서 자체가 밝히는 결별 이유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쟁과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4QMMT(4Q394-399)는 쿨란공동체가 예루살렘 중앙정부와의 결별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제의적 이유와 정결법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한 것임을 지적한다.³⁾ 물론 우리는 쿨란공동체와 예루살렘의 하스몬 왕가의 결별 이유를 고려할 때, 정치적 이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제의적이며 율법적인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다 비중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쿨란의 율법해석은 어떤 점에서 예루살렘과 주류 이스라엘 사회의 율법 해석과 차이가 있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구약,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경의 율법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경의 율법은 구약성서 중 쿨란공동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라는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의 종교사상적 갈등을 초래하고, 여러 분파로 분열하게 만든 가장 첨예한 문제였다. 예수와 바리새파의 율법 논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율법과 그 해석의 적용 문제는 유대사회에서 종교적 논쟁의 핵을 이루었다. 쿨란문서의 율법 연구는 예수 시대 훨씬 이전에 이미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유대사회의 중요한 논쟁거리였음을 입증하며, 예수와 바리새파간의 율법 논쟁은 율법을 둘러싼 긴 논쟁사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쿨란문서의 율법을 살펴본다는 것은 곧 쿨란문서 이곳저곳에 명기된 제반 율법 조항들을 살펴본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희생제사법, 결혼과 이혼법, 절기 및 안식일법, 전쟁 규례, 제사장의 규례, 왕의 규례 등). 그러나 본 논문

2) 이 주장은 요세푸스가 그의 고대사 20.237에서 전하는 “그 성은 대제사장 없이 7년을 보내게 되었는데”라는 구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쉬테게만은 이 공백 시기를 Intersacerdotium이라 부르며, 이 무명으로 남겨진 대제사장이 “의의 스승”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3) E. Qimron/J. Strugnell, *Qumran Cave 4. V. Miqsat Ma'ase ha-Torah*, (DJD 10; Oxford: Clarendon Press, 1994).

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는 율법들 중에서 정결법(תְּהִלָּה 토호라)을 수반하고 있는 콤파문서의 율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아가 콤파공동체의 율법 이해의 전반적인 특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구약성서에 나타난 정결법

구약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제사장 문서(The Priestly document)로 분류하는 레 11-15장,⁴⁾ 민 19장⁵⁾은 정결법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서본문이다. 이들 본문은 음식, 출산, 피부병, 곰팡이, 유출병,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각 부정에 대한 정결례를 제시한다. 즉 오경의 정결법은 부정이 초래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결예식을 치러야만 한다고 규정한다. 각각 다른 종류의 부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결예식이 규정된다.⁶⁾

예를 들어 레위기에 규정된 정결례 중에서 레 14장에서 상세하게 소개된 나병환자의 정결례를 살펴보면 나병으로부터 회복한 자는 우선 두 마리의 새를 갖고 행하는 예식을 치른다(레 14: 4-7). 다음으로 그는 옷을 세탁하고, 모든 털을 밀고, 목욕을 한 후 진영에 들어온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장막 밖에 칠 일간을 더 머물러야만 한다. 칠 일째 다시 한 번 더 세탁, 면도, 목욕을 반복한 후 진영에 들어오게 된다(레 14: 8-9). 팔 일째 일련의 동물 희생제(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의식이 따른다(레 14: 10-14). 제사장은 기름을 여호와 앞에 뿌리고, 정결케 된 사람의 머리 위에 바른다(레 14: 15-18).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환자는 완전하게 정결케 된다(레 14: 19-20). 이와 유사한 정결례는 남성 유출병 환자(레 15: 1-15), 설정한 자(레 15: 16-18), 여성 유출병 환자(레 15: 19-30)에게도 적용된다. 두 마리 새로 드리는 의식은 없지만, 이들 역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예식을 치른다. 곧 정결예식 중 씻는 것을 통해 부정한 자는 정하게 되고, 제사를 통해 정하게 된 자는 거룩하게 된다. 즉 정

4) 레 11장은 정결한 짐승/부정한 짐승과 관련된 정결한 삶, 레 12장은 출산과 관련된 정결한 삶, 레 13 - 14장은 피부병/곰팡이와 관련된 정결한 삶, 레 15장 유출병과 관련된 정결한 삶에 대해 다루고 있다.

5) 민수기 19장은 시체와 접촉한 후의 정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6) 오경에서는 정결례를 속죄제로 부른다. 속죄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J. M. Baumgarten, "The Purification Liturgies," P. W. Flint/J. C. VanderKam(eds.), *The Dead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Leiden: Brill, 1999), 200-212쪽.

결례식을 통해 부정한 자는 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절차를 통과하게 된다.

구약 정결법의 궁극적 목표는 거룩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레위기에 언급된 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레 19: 2b),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이니라”(레 20: 7),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이니라”(레 20: 24b) 등과 같은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구절들에서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קָדַשׁ**(코데쉬)이다. 즉 오경 정결법의 특징은 정결을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척도로 삼는다는 것이다. 역으로 부정은 거룩성을 침범하는 것이다. 해링턴(Harrington)은 거룩과 정결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정의 내린다. 정결은 존재의 상태로서, 부정이 결여된 상태이다. 거룩(**קָדַשׁ**/코데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적극적인 힘, 신적 에너지라고 본다.⁷⁾ 해링턴은 인간은 정결 즉 부정과의 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본질에 참여하려고 애쓸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오경의 율법은 결국 거룩성과 거룩을 실현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결법으로 귀결되며, 그 핵심은 성전과 제사장 직제의 거룩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정결법은 기본적으로 제의적 개념이다.⁸⁾ 그러나 정결법은 제의적 차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생활규범으로 확대, 적용된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레 11: 44)는 레위기 율법의 근본 개념은 제의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도덕적 영역을 위한 생활규범으로서 정결법은 크게 성관계, 우상숭배, 비윤리적 행위를 규정하는 율법이다. 이런 생활규범으로서의 정결법은 부정한 자를 죄인으로 규정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경의 정결법은 부정과 죄를 단순하게 동일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남녀의 성기에서 나오는 유출과 여성의 출산은 자연현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 죄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오히려 남녀의 유출과 출산은 공동체의 지속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지녔

7) H. K. Harrington, “Holiness and Law in the Dead Sea Scrolls,” *Dead Sea Discoveries* 8 (2001), 129쪽.

8) J. Neusner, “The Idea of Purity in Ancient Judais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3 (1975), 16쪽.

다. 그러나 죽은 시체와의 접촉이나 피부병, 혹은 부정기적이며 자연적이지 못한 유출병은 심각한 부정이며, 이런 병은 죄로 인한 저주로 여겨졌다(레 14장; 신 28: 27; 대하 26: 19 등). 죽음이나 유출 혹은 피부병과 같은 부정은 본질적으로 '거룩'의 개념과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성결법전(레 17-26장)은 구체적으로 부정을 초래하는 세 가지 죄를 규정한다. 그 세 가지 부정은 우상숭배, 금지된 성관계, 살인이다.⁹⁾ 구약에서 죄의 결과로 부정하게 된 예는 모세를 비방한 죄의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경우(민 12: 10)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한 죄 때문에 웃시아 왕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경우(대하 26: 16-21)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3. 쿠파란문서의 정결법

쿠파란문서 가운데 정결법이 나타나는 주요문서는 다음과 같다:

4Q512(4QRitual Purification)
 4Q284(4QSerek ha-niddot)
 4Q414(Baptismal Ligurgy)
 4Q394-399(4QMMT)
 4Q266-273(4QDamascus Document)
 11Q19-20(11QTemple Scroll)
 1QS(1QRule of the Community)
 4QTohorot 문서들(4Q274, 4Q276-277, 4Q278, 4Q284, 4Q284a)¹⁰⁾

쿠파란의 율법해석은 오경에 산재하여 나타나는 율법들을 통합(collocation/integration)하거나, 오경 내에서 서로 상충되는 율법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는(harmonization and reconciliation) 율법으로 새롭게 제시한다.¹¹⁾ 그러나 이러한 쿠파란공동체의 오경 율법 해석 방식과 특

9) 힘멜파브는 P문서는 부정과 죄를 구분하고, 성결법전은 부정은 제의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함으로써 P와 H를 구분한다. M. Himmelfarb, "Impurity and Sin in 4QD, 1QS, and 4Q512," *Dead Sea Discoveries* 8 (2001), 9-37쪽.

10) 4QTohorot는 심하게 훼손된 문서의 특징상 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티네즈는 fragment 1, fragment 2: 1, 2: 2, fragment 3을 사용하고, 와이즈, 아베그, 쿡(Wise, Abegg, and Cook)은 fragment 1: 1, fragment 1: 2, fragment 2: 1, 2: 2를 사용하고, 베미스(Vermes)는 fragment 1, 2, 3를 사용한다.

11) 쿠파란공동체의 오경 율법 재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M. J. Bernstein/S. A. Koyfman, "The Interpretation of Biblical Law in the Dead Sea Scrolls: Forms and Methods,"

장은 미쉬나와 같은 후대 유대 랍비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쿨란 공동체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후대 유대 랍비문학과 비교할 때 쿨란 정결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구약 정결법의 범주를 확대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 보다 더 문자적이면서도 엄격하다는 점이다. 쿨란공동체는 모세의 율법을 열등하거나 결여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자주의적 해석을 통해 모세 율법이 오히려 가장 진실된 율법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극단적 율법주의(hypernomistic)의 특징을 보여주었다.¹²⁾

1) 정결예식

쿨란공동체의 정결례는 나병환자의 정결례를 상술한 레 14장과 비교할 때 그 특징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구약은 제 팔일에 정결례를 마친 나병환자는 정결케 된다고 선언하지만, 쿨란문서는 비록 정결례가 끝난 후에도 해가 질 때까지는 정결하지 못한 자로 간주한다(4QMMT 71-72). 구약의 정결법은 나병환자를 진영 밖에 격리하라고 규정한 반면, 쿨란문서는 나병환자들은 모든 성읍 밖에 거주할 것을 명하며(11QT 48: 15), 그들이 사용하는 변소도 따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11QT 46: 17-18). 심지어 나병환자와 접촉하는 자 역시 부정해진다(4Q274 1 i 3). P문서가 부정한 자의 종류와 증상에 따라 정결법과 정결례에 차등을 두는 반면, 쿨란공동체는 그들이 치러야 하는 정결례 절차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하다. 나병환자뿐만 아니라 유출병자나 월경하는 여인과 접촉하는 자 역시 모두 부정하게 된다고 본다(4Q274). 이런 점에서 나병환자에게 적용되는 정결례 규칙은 유출병자나 월경하는 여인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특징은 쿨란공동체의 정결예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4Q512문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 문서는 매일 드리는 기도문을 싣고 있는 4Q503문서의 뒤편에 쓰인 문서로 보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초로 하스몬 서체로 기록되었다. 4Q512는 정결예식을 수행하는 자들을 위한 3인칭으로 구성된 정결예식 규율과 1인칭으로 된 축복 규율로 구성되어 있다.¹³⁾ 4Q512는 정결예식이 관례가 되는 절기를 구체적

M. Henze(ed.), *Biblical Interpretation at Qumra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61-87쪽.

12) J. M. Baumgarten, *윳글*.

13) 4Q512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움가르텐의 두 논문을 참조하라. J. Baumgarten et. al. *Qumran*

으로 명시하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것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포함하는 물(מֵי נִידָה)을 뿌릴 것을 규정한다. 정결예식이 끝난 후에는 축복이 뒤따른다. 4Q512과 유사하게, 4Q277 1 ii 역시 정결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부정한 자는 목욕을 하고, 그 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은 물을 뿌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린 후 정결하게 된다. 4Q277문서는 추가적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모으는 자는 반드시 정결한 자여야만 하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것과 물을 뿌리는 제사장은 반드시 성인 남성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다.¹⁴⁾ 즉 쿵란 정결례의 기본적 절차는 부정의 종류에 상관없이 세탁, 목욕,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 모두를 최소한의 의무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 정결예식에서 부정을 씻는 물(מֵי נִידָה)을 뿌리는 것은 원래 민 19장에서 유래한다. 민 19장은 '시체와 접촉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 특수한 물을 사용한다(민 19: 13, 20). 이 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사른 재에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섞어서 만든 물이다. 그런데 4Q512, 4Q277과 같은 문서에서 보듯, 쿵란문서에서 이 물의 사용은 단지 시체와 접촉한 자를 정결케 하는 경우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동체 입문절차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규율들을 다루고 있는 1QS에도 이 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1QS의 정결법 중 특이사항은 쿵란공동체의 율법해석을 수용하지 않는 자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죄일, 부정을 씻는 물(מֵי נִידָה)을 뿌리는 정결례, 혹은 물로 몸을 씻는(וַיִּטְבַּח מֵי לַחֲצֵצְוֹת) 정결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1QS는 정결례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요건은 쿵란공동체의 종파적 율법해석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쿵란공동체의 율법해석의 특징은 그들만이 숨겨진 율법의 참뜻을 계시 받는다는 것이다. 쉬프만은 쿵란의 이러한 율법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즉 율법은 계시된 것(מִצְוָה נִגְלָה)과 숨겨진 것(מִצְוָה נִסְתָּר)이 있다. 쿵란공동체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일반에게 알려진 율법해석은

Cave 4 XXV: *Halakhic Texts* (DJD 35), (Oxford: Clarendon Press, 1999); "The Purification Rituals in DJD 7," D. Dimant/U. Rappaport(eds.), *The Dead Sea Scrolls: Forty Years of Research*, (Leiden: Brill, 1992), 199-209쪽.

14) 이에 반해 바리새파의 율법 해석 전통을 잇는 미쉬나에서는 어린 소년으로 규정한다(m. Parah 3: 2).

이미 드러난 것, 계시된 것이다. 그러나 숨겨진 것은 쿵란공동체의 의의 승을 통해서만 계시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 사상으로 인해 쿵란공동체는 주류 이스라엘 사회의 율법해석과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시각 차이를 갖게 되었다.¹⁵⁾ 이렇듯 정결법에 사용되는 용어는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즉 정결법의 사회적 기능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타자와 경계선을 긋고, 공동체에 입례하는 초보자들에게 분명한 행동지침과 사상적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¹⁶⁾

그런데 쿵란 정결법에 있어서 눈에 띄는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쿵란공동체는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의 종류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쿵란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1QS 3: 4-9 본문을 살펴보자. “그는 속죄의 행위로 정결케(יָקַרְתָּ) 이자케) 되지 못하며, 부정을 씻는 물(מַי מִן הַיָּם)로 정결케(יָקַרְתָּ) 이타헤르) 되지 못하며, 바다나 강물로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며, 씻는 물(מַי מִן הַיָּם)로 정결케(יָקַרְתָּ) 이타헤르) 되지 못하며, 그가 공동체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한 그는 부정하고 부정하다(טָמֵא טָמֵא) 타메 타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실된 영으로 인간의 길, 그의 모든 죄악은 속죄되고 그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공동체의 거룩한 영으로, 진실로 그는 그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된다. 정직과 겸손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는 속죄된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의 육체는 부정을 씻는 물(מַי מִן הַיָּם)로 정결케(יָקַרְתָּ) 레하조트)으로써, 정결의 물(מַי מִן הַיָּם)로 정결케(יָקַרְתָּ) 레하조트)으로써 거룩하게 된다.”

1QS가 밝히는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의 종류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즉 부정을 씻는 물(מַי מִן הַיָּם)로 정결케(יָקַרְתָּ) 이타헤르), 씻는 물(מַי מִן הַיָּם)로 정결케(יָקַרְתָּ) 레하조트), 정결의 물(מַי מִן הַיָּם)로 정결케(יָקַרְתָּ) 레하조트)로 구분하고 있다. 이 물의 종류는 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연관되는데, 물을 사용하는 방법 역시 적어도 두 가지의 다른 방식이 있다. 즉 물을 뿌리는 것(רָחַץ)과 몸을 씻는 것(יָקַרְתָּ)이다. 물을 뿌리는 경우는 구약 정결법과 후기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시, 붉

15) L. H. Schiffman, “The Temple Scroll and the Nature of Its Law: The Status of the Question,” E. Ulrich/J. VanderKam(eds.), *The Community of the Renewed Covenant*,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51-52쪽.

16) 제의적 용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M. C. Conway, “Toward a Well-Formed Subject: The Function of Purity Language in the Serek Ha-Yaha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21 (2000), 103-120쪽.

은 암소를 태운 재와 섞은 물을 뿌리는 경우 밖에 없지만, 쿵란공동체의 경우 바움가르텐(Baumgarten)이 지적했듯이 시체 접촉 외에도, 종류불문하고 부정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 물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1QS 5: 14). 또한 쿵란공동체는 공동체에 입문하는 자들에게도 물을 뿌렸다(1QS 3: 9). 몸을 씻는 경우는 11QT에 따르면 설정이나 유출, 시체와의 접촉 등의 경우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한다고 규정한다(cols. 49-51). 몸을 씻는 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CD에 나온다. “몸을 씻는 자는 더러운 물에 씻어서는 안 되며, 몸이 잠기지 않을 정도의 얇은 물에서 씻어서도 안 된다. 그는 용기에 담긴 물로 씻어서도 안 된다. 몸이 잠기지 않을 정도의 낮은 바위 웅덩이나 부정한 자가 닿은 물이라면 용기에 담긴 물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물로 보아야 한다”(10: 11-14).¹⁷⁾ 4Q512는 설정한 자가 치러야 하는 정결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가 칠 일간의 정결의식을 마칠 때 그는 물에 자신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에 씻은 후, 옷을 입고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외쳐야 한다(frg. 10-11 x 2-5).”

여기서 특별히 구약성서의 용어를 특수하게 차용하는 쿵란문서의 용어로서 주목할 것은 바로 부정을 씻는 물(מֵי טָהוֹרֹת)이다. 그런데 왜 이 물이 생리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 니다(מֵי נִידָה)와 결합하여 사용될까? 쿵란문서는 니다를 단순히 여성의 월경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부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확대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니다는 광의적 의미로 나타난다(스 9: 11; 겔 7: 19 - 20; 애 1: 8; 숙 13: 1). 아마도 니다의 이러한 광의의 사용은 구약시대로부터 대표적인 부정을 여성의 월경혈로 보았기 때문인 듯 하다. 바움가르텐은 이런 광범위한 니다 용어의 사용은 부정을 씻는 물이 시체와 접촉한 자의 부정을 씻는 것에서부터 각종 다양한 종류의 부정, 특별히 성기 유출과 관련한 부정을 씻는 것에도 사용된 방증이라고 본다.¹⁸⁾ 쿵란공동체에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은 광범위한 제의적, 도덕적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된다(예: 4QTohorot B^b 1 ii 7-10). 민수기 19장은 시체와 접촉한 자의 정결례에만 물을 뿌렸지만, 쿵란공동체는 어떤

17) 물의 부피에 대한 쿵란 규정은 미쉬나와 동일하다. 미쉬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의 부피를 40 쉬아(seah)로 밝힌다.

18) J. M. Baumgarten, “The Use of מֵי טָהוֹרֹת for General Purification,” L. Schiffman/E. Tov/J. VanderKam(eds.), *The Dead Sea Scrolls Fifty Years After Their Discovery 1947-1997*,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481-485쪽.

종류의 부정을 씻는 정결례에서든지 물을 뿌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극대화된 정결법 해석과 적용

쿰란공동체의 정결법은 오경에서 소개된 정결법을 더욱 정교화하고 세분화한다. 이런 특징은 정결법의 기초가 되는 ‘거룩성’ 개념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오경 율법에 대한 가장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한 예로서는 구약은 가장 거룩한 곳(קֹדֶשׁ וְקֹדֶשׁ קֹדֶשׁ 코데쉬 코다솜)을 지성소로 한정하는데, 11QT와 같은 쿰란문서는 그 영역을 확대하여 성전 제단, 돛대야까지도 코데쉬 코다솜의 영역으로 간주한다(11QT 35: 8-9). 즉 성소, 성전 뜰과 주변 지역까지도 모두 거룩한 지역으로 구별한다. 또한 코데쉬 코다솜은 제사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된다(4Q397 5: 6-8; 1QS 7: 5-6; 9: 2-8; 참조 4Q400 1: 19).¹⁹⁾ 오경의 율법과 비교했을 때 쿰란문서는 성전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거룩성과 제사의 종류와 제사장이 취한 부분 등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1QT col. 40의 레위인의 의복 규정이나 4QMMT의 제사장의 뒵에 대한 논쟁 (fig. 3+4 i 9) 등을 보면 오경의 기본 규정을 더욱 확대, 세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전의 거룩성은 먼저 건축 양식에서 드러난다. 성전 지역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훨씬 지대가 높아져서 외관상으로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고, 쉽게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성전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거룩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방인이나 장애인은 물론 피부병이 있거나 설정한 자까지도 접근이 금지된다(11QT 45: 7b-47: 2; 4Q394 frg 8 iii-iv; 4Q396 frg 1 ii). 성전의 거룩성은 단지 성전지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예루살렘 전체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성전과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거룩한 지역에서는 배설(11QT 46: 13-16a)도, 성관계도 금지된다(11QT 46: 3-4).

11QT(성전문서)가 P문서의 정결법 규정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쿰란공동체의 극대화, 동질화하는 구약율법 읽기와 적용을 예시한다. 11QT는 시체와 접촉한 자와 성기 유출병과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

19) H. K. Harrington, "Purity," L. Schiffman/J. VanderKam(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24-728쪽.

을 하나의 동일한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P문서의 정결법은 심화되고 정교화 된다. 부정은 그 효력기간이 더 길어지고, 부정을 씻기 위한 제의는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시체와 접촉한 자의 정결례를 다루는 규정을 살펴보자. 11QT col. 49는 민 19장의 정결법대로 제 3일과 7일에 정결케 하는 물(מֵי נִידָה)를 뿌리고,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을 것을 명문화한다. 그런데 11QT는 민수기보다 더 엄격한 정결례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QT는 제 3, 7일 외에 제 1일에도 정결례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11QT 49: 13-17). 또한 민 19장 15절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있던 장막의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의 내용물만 부정하다고 한 반면, 11QT 49장 8절은 점토 그릇의 뚜껑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사람이 죽은 장막의 모든 그릇의 내용물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다른 예로 레위기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할 경우 남녀 모두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한 반면(레 15: 18), 11QT는 삼일 동안 예루살렘 밖에 머물러야 하며, 첫날과 셋째 날 목욕할 것을 명한다(11QT 45: 11). 이 정결법을 통해 콤란문서는 예루살렘 성읍 내에서의 성관계를 전면 금지한다. 이처럼 구약의 정결례를 보다 강화한 율법 적용은 유출병자에게도 적용된다. 레위기는 유출병자의 침상과 그가 앉았던 곳은 부정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11QT 15: 5-6), 콤란공동체는 단순히 침상과 의자뿐만 아니라, 유출병자가 접촉한 모든 것은 부정을 초래한다고 규정한다(4Q274 1 i 4-5).

유출에 관한 정결례와 관련하여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해진다. 출산 후 피를 유출하는 여성의 정결례에 관한 레 12장 4절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를 “제 팔일 해가 질 때까지”(4QD)로 구체적인 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또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주검과 닿은 것을 부정하다고 말한 것을 확대 해석하여, 콤란문서는 사산아를 낳게 된 여인을 부정하다고 본다(11QT 50: 10-19). 출산 외 부정기적인 유출병을 앓는 여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월경을 하는 여인도 그 기간 동안은 성읍 밖에 머물러야 한다고 규정한다(11QT 48: 13-17). 이런 월경하는 여인에 대한 정결법 때문에 콤란공동체는 여성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²⁰⁾

20) Y. Yadin, *The Temple Scroll I-III*, (Jerusalem: The Exploration Society, 1983), 306쪽.

또한 신명기는 전쟁시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고 규정한 것을(신 23: 12-14), 11QT는 아예 예루살렘에서 3000규빗²¹⁾ 떨어진 곳에 변소를 마련하라고 해석한다(11QT 46: 16-18). 구약의 율법 해석이 극대화된 또 다른 예는 물고기를 제의적으로 도살(CD 12: 13-14)하거나, 모든 식사 전 목욕 의무(1QS 5: 13) 등을 통해 드러난다.

3) 내, 외적 정화 모두를 위한 정결례

구약 정결법과 비교하여, 쿰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몸의 정화가 영의 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이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타난 정-부정 개념은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제의적 측면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쿰란 정결법은 피부병(**טַרְסַן** 짜라아트)과 같은 부정이 죄의 결과로서 혹은 악령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본다(4QThrA1; 1QH 1: 32). 또한 구약의 정결법과 몸의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결례가 몸의 정화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면, 쿰란 정결법의 특징은 몸의 정화는 곧 영의 정화라고 본다는 점이다. 이것은 몸과 영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1QS 3: 7-9을 보자: “거룩한 영으로 그와 진실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는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복함으로써 그의 육체는 정화의 물을 뿌림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는 정결의 물로 그를 성화케 된다.” 또한 1QS 5: 13는 공동체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들은 거룩한 자들의 정결한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결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부정하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한다. 즉 쿰란공동체는 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피부병, 유출병, 시체와의 접촉 등과 같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몸의 정화만이 아니라, 정결의 물을 뿌림으로써 내적 변화가 함께 일어날 때만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회개 없는 세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²²⁾ 반드시 영적 회개라는 내적 변화가 수반될 때, 세례라는 외적 예식이 진정한 정결예식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쿰란공동체의 신학은 신약에서 “사람이 물

21) 1 규빗을 대략 45-52cm로 본다면, 그 거리는 대략 1.35-1.56km 정도로 볼 수 있다.

22) J. M. Baumgarten, “The Law and Spirit of Purity at Qumran,” J. H. Charlesworth(ed.),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98쪽.

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 5) 라는 예수의 말씀을 연상시킨다. 이런 정결례에 대한 예를 통해서 보듯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쿵란문서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움가르텐은 구약의 정결법의 법적인 측면에다가 영적 측면을 부가한 쿵란 정결법의 특징은 단순히 율법의 영적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그는 쿵란 정결법의 영적 해석은 쿵란공동체의 종말론적 사고체계 안에서 이해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즉, 쿵란공동체의 율법에 대한 영적 해석의 특징은 그들이 마지막 때(מֵתֵי הַמָּוֹת אַחֲרֵיט 하야밈)에 살고 있다는 종말의식 속에서 출발하는데,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 공동체의 율법해석과 적용으로 성취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예 4QMMT). 그들은 모세율법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계시’를 통해 오히려 모세율법의 완전성과 온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본다. 바움가르텐의 이런 해석은 종래 쿵란학자들이 쿵란공동체는 모세의 율법의 불완전성을 보충하고자 했다는 해석(예를 들어 W. D. Davies²³⁾)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4. 쿵란공동체의 정결의식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자료들

쿵란문서에 기록된 정결의식이 실제 쿵란공동체에서 엄격하게 거행되었다는 것은 키르베트 쿵란(Khirbet Qumran) 지역의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었다.²⁴⁾ 쿵란지역은 기원전 2세기 쿵란공동체가 사용하기 훨씬 이전인 8-7세기에 거주한 고고학적 증거를 지니고 있다. 이 무렵 키르베트 쿵란에는 원형의 물 저장소가 있었다. 그런데 쿵란지역의 수로 시스템이 급진전한 것은 기원전 2세기 무렵 이곳을 새롭게 거주지로 삼은 쿵란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드 보(R. de Vaux)가 말하는 제 1a기(Period 1a, 기원전

23) W. D. Davies, “Paul and the Dead Sea Scrolls: Flesh and Spirit,” K. Stendahl(ed.), *The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 1957), 276-282쪽.

24) 키르베트 쿵란 발굴을 통해 물저장소가 여러 개 발견되었다. 키르베트 쿵란유적지의 전체적인 수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P. Hidirolou, “Aqueducts, Basins, and Cisterns: The Water Systems at Qumran,” *Near Eastern Archaeology* 63 (2000), 138-139쪽. 또한 키르베트 쿵란 유적지의 수로 시스템의 연대기적 연구 논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B. G. Wood, “To Dip or Sprinkle: The Qumran Cisterns in Perspectiv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56 (1984), 45-60쪽. 이스라엘 전체에서 발굴된 미크바오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B. Grasham, “Archaeology and Christian Baptism,” *Restoration Quarterly* 43 (2001), 113-116쪽.

135-104년경)시기이다. 이때 와디 쿨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짧은 수로관(channel)을 설치하여 물을 북서쪽에 있는 넓고 얇은 물 저장소(cistern)에 모으고, 이 물은 원형 저장소로 흘러 들어가고, 원형 저장소 옆에는 계단이 있는 두 개의 직사각형 물 저장소를 추가하여 이곳으로도 흘러 들어가게 하였다.²⁵⁾



쿨란 수로시스템이 더욱 확대, 발전하게 되는 것은 드 보가 분류한 제 1b 기(Period 1b, 기원전 31년 이전)이다. 계단 없는 물 저장소 한 개, 계단 있는 물 저장소 5개, 작은 욕탕 두 개, 더 작은 규모의 시설물 등이 설치되었다.²⁶⁾ 드 보는 키르베트 쿨란의 물 저장소 중 욕탕으로 쓰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물 저장소로 파악한 반면, 후에 라이히는 쿨란의 16개 물 저장소 중 10개를 침례탕(מִקְוֹת 미크바오트)으로 분류했다. 즉 라이히(Reich)는 키르베트 전역에 산재한 물 저장소를 좁은 계단 혹은 계단이 없는 곳은 단순한 물 저장소로, 넓은 계단이 있는 곳은 정결의식을 위한 침례탕(purificatory immersion)으로 구분했다.²⁷⁾ 라이히는 많은 쿨란 미크바오트는 공동체 식사와 주요 일상사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

25) R. de Vaux, *Archaeology and the Dead Sea Scrolls* (Schweich Lectures of the British Acade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131-132쪽.

26) 위치에 대한 간결한 평면도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R. North, "The Qumran Reservoirs," John L. McKenzie(ed.), *Bible in Current Catholic Thought*, (New York: Herder & Herder, 1962), 109쪽.

27) R. Reich, "Miqwa'ot at Khirbet Qumran and the Jerusalem Connection," L. Schiffman/E. Tov/J. VanderKam(eds), *The Dead Sea Scrolls Fifty Years After Their Discovery 1947-1997*,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728-731쪽.

동체 식사를 하기 전 제의적 목욕을 해야 한다(1QS 5: 13)는 쿵란 정결례에 따라 많은 숫자의 인원이 한꺼번에 목욕재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미크바오트가 필요했으리라고 본다.

또 다른 쿵란공동체의 엄격한 율법해석의 실천은 '돌로 만든 용기'의 발굴을 통해 입증된다. 정한 용기의 액체를 부정한 용기에 부으면 그 부정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한 용기마저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쿵란공동체는 액체의 부정 전염성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였다.



쿵란공동체의 액체의 부정과 전염성에 대한 민감성은 마시는 물을 포함하는 음식법에 대한 극단적 엄격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쿵란유적지에서 발굴된 200여개의 돌 용기를 통해 입증된다. 비록 돌 역시 부정에 노출될 수 있지만 기름 종류 외에는 부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것이 돌이었기에 쿵란공동체는 돌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였다. 사실 이 돌 용기는 유대사막 뿐만 아니라 유대 산간지역, 사마리아, 갈릴리, 골란고원, 요단 강 건너편 등지에서도 발굴되었다. 광범위한 돌 용기의 발굴은 정결에 대한 강박적 관심은 쿵란공동체 뿐만 아니라 제 2성전시대 유대사회의 일반적 현상이었음을 대언한다.

5. 결론

구약의 정결법은 오경 율법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오경의 정결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제사장이었다. 정결법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된 것은 제 2성전시대에 들어와서이다.²⁸⁾ 쿵란문서는 제 2성전시대 유대사회의 한 변방에서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극대화되고, 실제적으로 생활 전반을 지배하였음을 확연하게 입증한다. 쿵란공동

28) Baumgarten, 윗글(2006), 96쪽.

체는 공동체 입회식부터 회원 개개인의 일상사를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결례를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그들의 문자적이며 엄격한 율법해석과 적용의 예는 미크바오트와 돌 용기 같은 고고학적 유물뿐만 아니라, 여러 쿵란문서에 나타나는 정결법에서도 발견된다. 쿵란 정결법의 특징은 P문서의 정결법을 통합하고, 문자적으로 보다 확대해석하여 원래의 정결법의 간극을 메우고, 이로써 정결법의 실행에 있어서도 최고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결법의 확대해석과 엄격한 실천의 예는 피부병, 유출병(월경과 출산 포함), 시체와 접촉한 경우 등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목욕, 세탁, 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쿵란공동체의 정결법 규정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목욕과 세탁은 부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체 입회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었다.

한편 쿵란문서의 정결법은 신약시대 예수와 바리새파 간의 논쟁이 단순한 예수와 유대 한 종파만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와 깊이가 깊고도 심각한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율법 논쟁은 구약 율법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오랜 역사 동안 전개된 유대사회의 율법 논쟁사라는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6. 참고문헌

- 천 사무엘, "쿵란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제 4집(1998), 99-123쪽.
- Baumgarten, J. M., "The Purification Liturgies," P. W. Flint/J. C. VanderKam(eds.), *The Dead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Leiden: Brill, 1999), 200-212쪽.
- _____, "The Use of **טָהַר** for General Purification," L. Schiffman/E. Tov/J. VanderKam(eds.), *The Dead Sea Scrolls Fifty Years After Their Discovery 1947-1997*,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481-485쪽.
- _____, "The Law and Spirit of Purity at Qumran," J. H. Charlesworth(eds.),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93-105쪽.
- Bernstein, M. J./S. A. Koyfman, "The Interpretation of Biblical Law in the Dead Sea Scrolls: Forms and Methods," M. Henze(ed.), *Biblical Interpretation at Qumra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61-87쪽.

- Conway, M. C., "Toward a Well-Formed Subject: The Function of Purity Language in the Serek Ha-Yaha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21 (2000), 103-120쪽.
- Davies, W. D., "Paul and the Dead Sea Scrolls: Flesh and Spirit," K. Stendahl(ed.), *The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 1957), 276-282쪽.
- De Vaux, R., *Archaeology and the Dead Sea Scrol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Grasham, B., "Archaeology and Christian Baptism," *Restoration Quarterly* 43 (2001), 113-116쪽.
- Harrington, H. K., "Purity," L. H. Schiffman/J. VanderKam(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24-728쪽.
- _____, "Holiness and Law in the Dead Sea Scrolls," *Dead Sea Discoveries* 8 (2001), 124-135쪽.
- Hidirolou, P., "Aqueducts, Basins, and Cisterns: the Water Systems at Qumran," *Near Eastern Archaeology* 63/3 (2000), 138-139쪽.
- Himmelfarb, M., "Impurity and Sin in 4QD, 1QS, and 4Q512," *Dead Sea Discoveries* 8 (2001), 9-37쪽.
- Neusner, J., "The Idea of Purity in Ancient Judais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3 (1975), 15-26쪽.
- North, R. G., "Qumran Reservoirs," J. L. McKenzie(ed.), *Bible in Current Catholic Thought*, (New York: Herder & Herder, 1962), 100-132쪽.
- Regev, E., "Abominated Temple and a Holy Community: The Formation of the Notions of Purity and Impurity in Qumran," *Dead Sea Discoveries* 10 (2003), 243-278쪽.
- Reich, R., "Miqwa'ot at Khirbet Qumran and the Jerusalem Connection," L. Schiffman/E. Tov/J. VanderKam(eds.), *The Dead Sea Scrolls Fifty Years After Their Discovery 1947-1997*,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728-731쪽.
- Schiffman, L. H., "The Temple Scroll and the Nature of Its Law: The Status of the Question," E. Ulrich/J. VanderKam(eds.), *The Community of the Renewed Covenant*,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37-55쪽.
- Wood, B. G., "To Dip or Sprinkle: The Qumran Cisterns in Perspectiv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56 (1984), 45-60쪽.
- Yadin, Y., *The Temple Scroll*, I-III, (Jerusalem: The Exploration Society,

1983).

검색어
메이 니다
미크바오트
세레
정결법
쿰란

투고일: 2009년 10월 12일
심사일: 2009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3일

The Purity Law in the Qumran Scrolls

Yoon Kyung Lee

Lecturer at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 D.

This paper begins with the presupposition that the Qumran community had separated from the Hasmonean dynasty and the larger Jewish society not primarily because of political agenda, but because of their distinctive interpretations of laws. We cannot fully set aside political reasons surrounding the high priesthood. Yet the emergence and presence of the Qumran community had been derived from the different view and interpretative orientation regarding the laws. This paper presents this matter by examining the purity law in the Qumran scrolls. The peculiarity of the Qumranic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the tendency to collocate or integrate the legal rulings of the Old Testament and also to harmonize or reconcile the conflicting biblical rules. In this paper, the three aspects of the purity law in the Dead Sea Scrolls are examined: the purification ritual, the maximized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internal/external purification.

The characteristic of the Qumranic purification ritual is revealed in the extended use of the water for purification (מֵי נִדָּח). In the Old Testament, this water is limited to the case of washing the person who contacted with the dead body, both human beings and animals. But in the Qumran, the

water is used almost all cases for impurity, including initiation rite. Similar tendency to extend the use and bounds of the biblical purity law can be found in much more strict and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laws. For instance, Numbers 19 stipulates that the impure person from death should sprinkle $\text{קִי$ וְיָבֵשׁ on the third and seventh day, wash his/her clothes, and bathe his/her body. The interpretation of this law in 11QT is to sprinkle the water not only on the third and seventh day, but also on the first day. More important development of the Qumranic purity law is the notion that purification ritual is not only for washing and eliminating physical/material impurity, but also for purifying the spirit.

The Qumranic concern for purity and purification is evidenced in the archaeological remains in the Khirbet Qumran. In the Khirbet Qumran we can find sixteen cisterns and/or baths. This number is definitely more than the normal need such a small community as Qumran. Scholars agree that the use of the inordinate water system must have been related to purity laws and practices of purification rituals. Also, in the Khirbet Qumran, stone vessels are excavated. The stone vessels are believed to have been made specially for avoiding contagion.

Keywords

Mei Niddah
Miqvaot
Purification
Purity
Qumran
Ritual bath